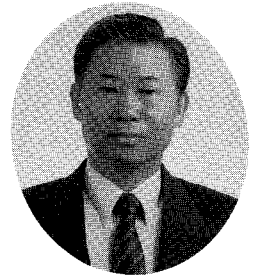


2001년 서울 국제회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

KCID 이사 최 예 환
강원대학교 교수



지난 9월 ICID의 카이로 집행위원회에서 2001년 제 1차 아시아 지역회의와 제52차 집행위원회의의 한국유치에 경합 상대인 미국을 제치고 성공을 거두었다. 이는 1993년의 네덜란드 총회에서 조홍래 회장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, 2001년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할 뜻을 표명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후 KCID가 매년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고 맹활약을 해 온 결과라고 볼 때 다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.

그러나 2001년은 햇수로 5년, 준비기간으로 만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기쁨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.

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의 내용을 보면, 그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대단히 활발하며, 특히 국제기구인 FAO, UNDP,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들도 물 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ICID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NGO로서의 ICID의 위상도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다. 따라서 회원국 수도 점점 증가하게 되어 그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회원국들간의 경쟁도 대단히 치열해지게 되었다.

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경쟁을 물리치고 2001년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은 그동안 KCID의 성장과 이를 위해 노력한 회장, 임원 및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.

내용면에서는 각 정기·비정기 간행물 발간과 이에 따른 국제교류, 매년 “세계 물의 날”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제규모의 심포지엄 개최, KCID의 ICID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, 그리고 월남국 관계배

수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기술협력도 KCID의 위상제고에 크나큰 소득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먼저 2001년 한국에서의 ICID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면, 첫째, 지금부터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. 준비위원회가 미리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고 본다.

둘째, 적절한 기술세미나의 주제 및 부제 선정으로 많은 회원국들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발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KCID가 이끌어주고 준비를 해야 한다. 이것은 KCID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로 준비위원들은 지금부터 많은 연구를 하고, 또 4년 후에 도래할 시대적 최고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셋째, 논문투고 안내, 회의장의 선정, 현장견학코스 선정 및 준비, 출판물 발간, ICID 사무국과의 협조문제 및 재정 계획수립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4년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국제간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넷째, ICID 총회에 못지않게 한국을 PR할 수 있는 관광코스 준비 및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한국을 모처럼 방문하는 ICID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문화 한국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. 이는 과거 한국에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다.

세계 각국 회원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즐기며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고 그들에게 한국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술 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.

다섯째, KCID 임원은 물론 전회원이 하나가 되어 지금부터 꾸준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다가올 2001년까지는 준비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알차고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, 전회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요망된다 할 것이다.